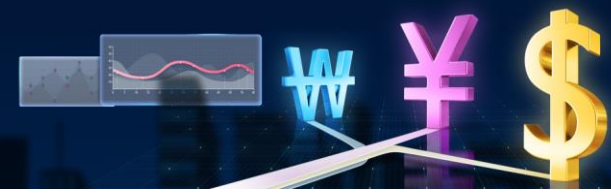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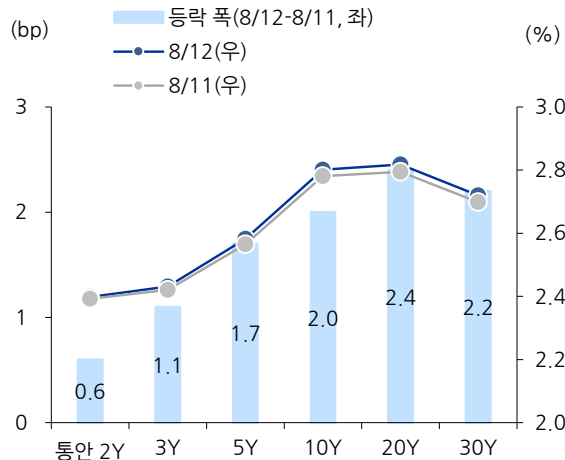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38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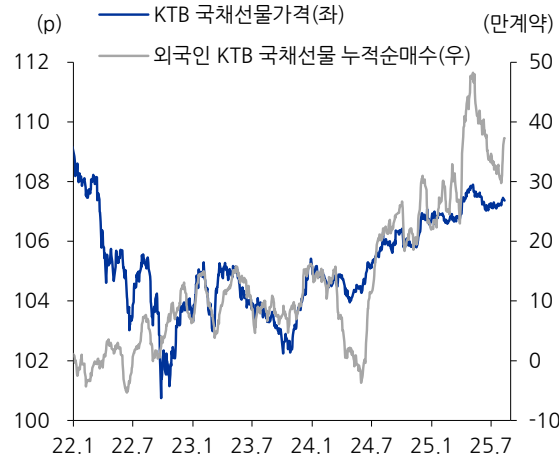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	8/12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431%	1.1	0.6	-16.5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01%	2.0	3.5	-5.4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37.0	36.1	34.1	25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7.36	-3.0	-2.0	71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8.65	-15.0	-23.0	173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732%	-3.7	0.7	-50.7
	미국채 10년물	4.290%	0.4	7.9	-28.2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55.8	51.7	48.7	33.3
	독일국채 10년물	2.743%	4.7	11.3	38.0
	호주국채 10년물	4.244%	-0.3	1.8	-12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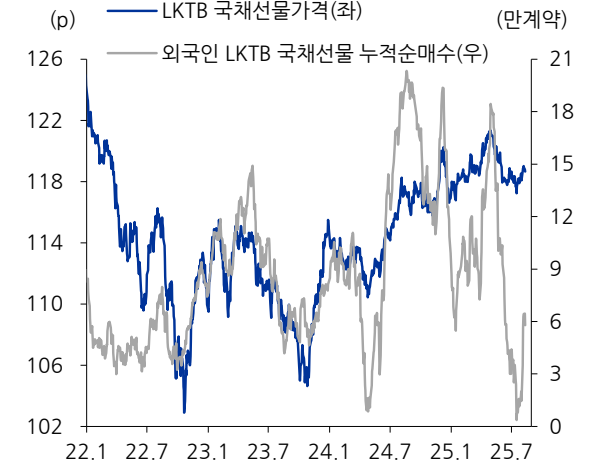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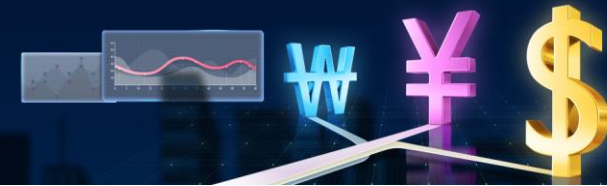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
- 미 CPI 발표 앞둔 경계감이 지속. 아울러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도 규모 확대되며 약세 압력 가중.
- KDI, 새정부 출범 후 경기 부양 기대와 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을 0.8%로 유지. 건설업 부진 장기화가 근거로 풀이됨.
- 한편 RBA, 노동시장 및 물가 완화를 근거로 정책금리 25bp 인하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.
- CPI가 대체로 예상에 부합했다는 평가. 관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졌던 공산품 물가 상승 속도는 진정되었고, 내달 인하 기대가 이어지며 단기금리 하락.
- 반면 장기물은 물가 발표 직후 BEI가 상승한 여파로 약세 시현.
- 트럼프, 연준 본관 개보수 비용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파월을 압박. 그에 대한 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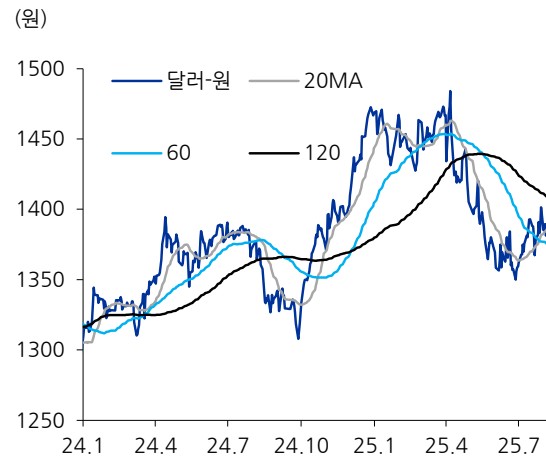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8/12일	1D	1W	YTD
원/달러	1,389.90	0.1%	0.1%	-5.6%
달러지수	98.06	-0.5%	-0.7%	-9.6%
달러/유로	1.168	0.5%	0.9%	12.8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19	-0.1%	-0.1%	-2.1%
엔/달러	147.83	-0.2%	0.2%	-5.9%
달러/파운드	1.350	0.5%	1.5%	7.9%
헤알/달러	5.39	-1.0%	-2.1%	-12.8%
WTI 근월물(\$)	63.17	-1.2%	-3.1%	-11.9%
금 현물(\$)	3,348.00	0.2%	-1.0%	27.6%
구리 3개월물(\$)	9,840.00	1.1%	2.1%	12.2%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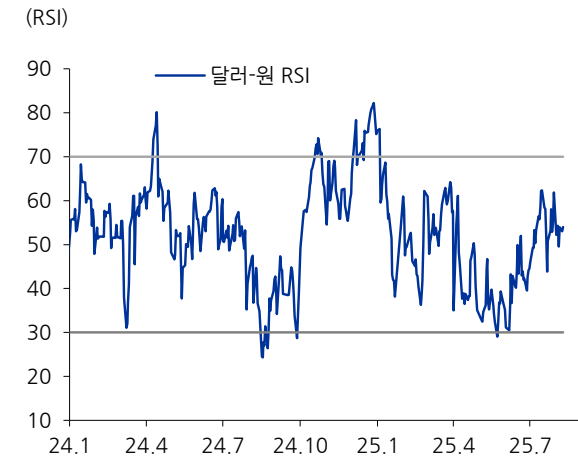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1.90원 상승한 1,389.9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84.40원 마감.
- 간밤 미국에서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CPI 경제심 속 달러는 반등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아시아 장에서도 계속.
- 달러-원은 1,391.00원에서 상승 출발 후 오전 한 때 1,393원까지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CPI 대기 심리 속 하방이 저항된 채 1,390원 내외에서 등락을 지속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CPI 예상치 부합에 하락.
- 7월 CPI 및 Core CPI는 각각 +2.7%(Y), +3.1%(Y) 상승해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. 특히 지난 6월 가팔라졌던 공산품 부문의 물가 상승 속도가 다소 진정되면서 시장에 안도감 제공. 그러나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큰 폭으로 확대.
- 연준 인사들의 반응도 다소 엇갈렸음. 임시 이사 후보인 미란 CEA 의장은 관세 발 인플레이 증거는 전혀 없다고 평가. 반면 리치몬드, 캔자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신중론을 유지. 시장은 9월 인하를 확실히.
- 한편 트럼프는 전일 파월 의장에 대한 중대한 소송을 거두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달러는 일시적으로 급락했다가 이후 반등.